

## 2017년 기상직 7급 한국사 A 책형 해설

1. 다음 밑줄 친 ‘이 나라’의 세력범위를 짐작할 수 있는 유물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진(秦)이 천하를 병합하고 장성을 쌓아 요동에 이르렀을 때, 이 나라에서는 ‘부’가 왕으로 즉위하였다. …(중략)… ‘부’가 죽자, 그 아들 ‘준’이 즉위하였다. - 위략 -



① ㉠, ㉡

② ㉡, ㉢

③ ㉢, ㉣

④ ㉠, ㉣

1.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고조선의 부왕(否王)과 준왕(準王)이 부자 상속을 통해 왕위를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나라로 밑줄 친 ‘이 나라’는 고조선이다. 따라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짐작할 수 있는 유물을 고르는 문제이다.

㉠, ㉣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려 주는 유물은 비파형 동검, 탁자식(북방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 거친무늬 거울이다.

㉡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는데, 주검의 위치와 무덤의 형태에 따라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구분된다. 이 중 남방식 고인돌은 땅을 파고 그곳에 판돌이나 깎돌(割石)로 긴 네모꼴의 돌널(石棺)을 만들어 그 안에 주검을 넣는다. 그 위에 받돌(支石)이나 돌무지(積石)를 쌓은 뒤 그 위에 덮개돌을 덮는데, 덮는 형식에 따라 뚜껑식(蓋石式)과 바둑판식(碁盤式)으로 나뉜다. 뚜껑식은 돌널의 뚜껑이 땅 위에 노출되거나 땅 밑의 널을 덮은 뚜껑과는 별도로 그 위에 다시 덮개돌을 올려놓는데, 덮개돌을 받치는 받침돌(支石)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바둑판식은 주로 영호남 지역에 분포하는데, 작은 받침돌이 덮개돌을 받치고 있어 바둑판처럼 보인다. ㉢ 신석기 시대에 등장한 가락바퀴로서 뼈바늘과 함께 옷과 그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2. 다음 사료들을 시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 내신좌평을 두어 왕명 출납을, 내두좌평은 물자와 창고를, …… 병관좌평은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각각 맡게 하였다.

(나) 영락 6년 병신에 왕은 몸소 수군을 이끌고 백잔을 토벌하였다. 군대가 소굴에 이르러 남으로 일팔성 등을 공격하여 취하니 백잔은 의로움에 복종하지 않고 감히 맞아 싸우는 지라.

(다) 동옥저를 정벌하여 그 땅을 취하고 성읍을 만들며 국경을 개척하였는데, 동으로는 창해에 이르고 남으로는 살수에 이르렀다.

(라) 왕이 즉위한 갑신년에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동진에서 오니, 그를 맞이하여 궁중에 두고 예로써 공경했다. 이듬해 을유에 한산주에 절을 짓고 승려 10명을 두었으니 이것이 백제 불법의 시초이다.

- ① (가)-(다)-(나)-(라)                      ② (가)-(다)-(라)-(나)  
 ③ (다)-(가)-(라)-(나)                      ④ (다)-(가)-(나)-(라)

2. 정답 : ③

(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태조왕은 56년 동옥저(東沃沮)를 정벌하였다. 그 결과 국경이 동쪽으로는 창해(滄海)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살수(薩水)에 이르게 되었다. (가) 3세기 고이왕 때 새로운 관제로서 6좌평 16관등제를 설치하였다. (라) 백제가 동진의 마라난타가 전래한 불교를 수용(384)한 것은 4세기 침류왕 때이다. (나) 396년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직접 수준을 이끌고 해로로 관미성과 아딘성을 공파(攻破)하고 백제 아신왕의 굴복을 받아내었다.

3. 다음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백제의 내법좌평은 형옥업무를 관장하였다.  
 ② 방령과 군장, 도사는 백제의 지방관 명칭이다.  
 ③ 태봉의 내봉성은 왕명을 받들어 행정을 집행하였다.  
 ④ 신라의 사정부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3. 정답 : ①

① 백제의 내법좌평은 의례를 담당하였고, 형옥 업무는 조정좌평이 담당하였다.  
 ② 백제의 지방 통치 조직은 방·군-성 체제로 정리할 수 있는데, 방(方)의 장관은 방령이라 불리는 달솔의 관등을 가진 자가 임명되었다. 방령의 관할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군(郡)의 장은 군장(郡將)이라 불렸으며, 방과 군의 통할을 받는 하위의 지방지배조직이 성(城)에 파견된 지방관의 명칭은 도사(道使) 또는 성주(城主)라 불렸다. ③ 왕권을 대변하면서 왕의 명령과 인사를 담당하던 내봉성은 태봉 시기에 이르러 광평성에 이어 제2위의 관부가 되었다. 이것은 곧 궁예가 내봉성을 통해 본격적인 인사권의 행사와 함께 왕권의 강화를 위한 것이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4. 다음 밑줄 친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7년 기상직 7급

왕은 놀라고 기뻐하여 오색 비단과 금과 옥으로 보답하고 사자를 시켜 대나무를 베어서 바다에서 나오자, 산과 용은 갑자기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다. …… 태자 이공(理恭)이 대궐을 지키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는 말을 달려와서 말하기를, “이 옥대의 여러 쪽들이 모두 진짜 용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네가 어떻게 그것을 아는가?”라고 하자 태자가 아뢰기를, “쪽 하나를 떼어서 물에 넣어보면 아실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왼쪽의 둘째 쪽을 떼어 시냇물에 넣으니 곧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그곳은 못이 되었다. 이로 인해 그 못을 용연(龍淵)으로 불렀다. 왕이 행차에서 돌아와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월성(月城)의 천존고(天尊庫)에 간직하였다.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병이 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장마는 개며, 바람이 자자지고 물결이 평온해졌다.

- 삼국유사 -

< 보 기 >

- ㉠ 독서삼품과 설치  
㉡ 9서당 10정 정비

- ㉢ 예작부 설치  
㉣ 백관잠 제정

① ㉠, ㉡

② ㉢, ㉣

③ ㉡, ㉣

④ ㉠, ㉣

4. 정답 : ②

제시된 사료는 『삼국유사』 기이편에 서술된 만파식적(萬波息笛)과 관련된 내용이며, 이 사료 속의 ‘왕’은 신문왕(681~692)이다.

㉢ 예작부(例作府)는 토목과 건설을 담당하는 통일 신라 14관부의 하나로서 신문왕 대 완비되었다. ㉣ 통일 신라는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문왕 대에 통일 이전의 체제를 확대하여 9주 5소경을 설치하였으며, 군사 제도를 중앙군인 9서당과 지방군인 10정으로 새롭게 정비하여 왕을 중심으로 한 군사권을 강화하였다.

㉠ 관리들의 독서 능력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채용하는 독서삼품과의 실시(788)는 원성왕 대의 사실이다. ㉡ 성덕왕은 즉위 이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711년(성덕왕 10) 왕이 백관잠(百官箴)을 지어 여러 신하들에게 보여 주었다고 한다. 현재 백관잠의 내용은 전하지 않지만, ‘백관잠’의 ‘백관(百官)’이 모든 신료를 의미하고 ‘잠(箴)’은 경계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면, 백관잠은 전제 왕권 아래에서 모든 신료가 맡아야 할 일종의 행동 지침[戒名]을 적은 것으로 추정되며, 왕권을 제약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일종의 견제로 볼 수도 있다.



5. 다음 밑줄 친 인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왕이 하루는 여러 아들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누가 승려가 되어 복전(福田)을 지어 이  
로움을 더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자, 왕후(王煦)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제가 세상을 벗  
어날 뜻이 있으니 오직 임금께서 명하실 바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좋다.”  
라고 하자 드디어 스승을 좇아 출가(出家)하여 영통사(靈通寺)에 살았다. 왕후는 성품이  
충명하고 지혜롭고 배움을 좋아하여, 먼저 『화엄경(華嚴經)』을 업으로 삼고 곧 오교(五  
敎)에 통달하게 되었다. 또한 유학(儒學)도 섭렵하여 정통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없었으  
니, 우세승통(祐世僧統)이라고 불렸다.

- 고려사 -

< 보 기 >

- ㉠ 교관겸수와 성상겸학을 주장하였다.
- ㉡ 법안종을 수입하여 홍왕사를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였다.
- ㉢ 자신의 본성을 단번에 깨달은 후, 마음의 번뇌를 제거하도록 꾸준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 해동천태종을 창시하여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까지 포섭하려고 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5.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왕후’는 대각국사 의천을 말한다. 의천은 고려 문종의 넷째 왕자로  
서 불교를 독신하는 인예왕후 이씨를 어머니로 하여 태어났으며, 왕자들에게 승려로 출가할  
뜻을 타진하는 부왕에게 11세가 된 어린 ‘왕후’가 선뜻 출가의 소원을 사죄었다고 전한다.

㉠ 의천은 교관겸수(敎觀兼修), 내외겸전(內外兼全), 성상겸학(性相兼學)을 제창하여 이론의  
연마와 함께 실천을 강조하였다. ㉡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기 위해 국청사  
를 창건하고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 의천은 귀족들의 호화로운 불교 의식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홍왕사의 주지가 되어  
화엄종을 바탕으로 불교 혁신 운동을 전개하였다. ㉣ 보조국사 지눌에 대한 설명이다. 지눌  
은 우리의 본성이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깨달은 후, 성인의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점차로  
스스로를 닦아 익히는 수행을 통해 끝없이 익혀온 버릇을 없애야 한다는 돈오점수를 내세웠  
다.

6. ( 가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의민은 일찍이 붉은 무지개가 두 겨드랑이 사이에서 생기는 꿈을 꾸고는 자못 이를  
자부하였고, 또 옛 도참에 왕씨가 다하고 다시 십팔자(十八子)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十八子’는 곧 ‘이(李)’이다. 이로써 마음속에 이를 수 없는 생각을 품고, 탐욕을 줄이고  
명사(名士)를 거두어서 헛된 명예를 구하려고 하였다. 자신이 경주 출신이므로 비밀리에  
신라를 부흥시킬 뜻을 가지고, ( 가 ) 등과 연결하니, 그들도 역시 거만(鉅萬)을 보냈다.

- 고려사 -

- ① 노비들을 모아 반란을 도모하였다.
- ② 소(所)민의 신분해방을 목적으로 난을 일으켰다.
- ③ 정중부와 이의방 등 무신세력에 반발하여 항쟁하였다.
- ④ 운문과 초전에서 봉기를 일으키고 서로 연합하였다.

6.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가)는 ‘김사미와 효심’이다. 『고려사절요』의 기록에 따르면 김사미와 효심의 봉기군에게 관군이 계속 패배한 것은 당시 이의민이 신라 부흥 혹은 자신의 권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김사미 등의 봉기를 이용하였고, 김사미 등 또한 경주 출신인 이의민을 통해 신라 부흥을 실현하려고 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④ ‘김사미와 효심의 난’(1193)은 정부가 ‘남적(南賊)’이라고 지칭한 삼남 지방 각지의 봉기 중 가장 크고 격렬한 사건 중 하나였다. 김사미는 1193년 청도군 내의 운문(雲門)에 본거지를 두고 농민들을 모아 반란을 일으켰으며, 초전(草田)에 근거를 둔 효심의 반란군과 연합하였다. 중앙 조정에서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대장군 전존겸(全存僉)에게 장군 이지순(李至純)·이공정(李公靖)·김척후(金陟侯) 등을 거느리고 출정케 하였으나 계속 패하고 말았다.

① 최충헌 집권기인 1198년에 일어난 만적의 난에 대한 설명이다. 최충헌의 사노(私奴) 만적이 개경 북산(北山)에서 나무를 하다가 공(公)·사(私) 노비들을 모아놓고 “사람이면 누구나 공경대부(公卿大夫)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봉기를 계획하였다. 만적은 모인 노비들의 동조를 얻은 후, 치밀하게 세운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려고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② 1176년 특수 행정구역인 명학소에 살던 망이(亡伊)·망소이(亡所伊) 형제가 일으킨 봉기에 대한 내용이다. ③ 1173년에 일어난 김보당의 난과 1174년에 일어난 조위충의 난에 대한 설명이다. 두 사건은 모두 정중부와 이의방 등 무신세력에 대한 문신들의 반발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7. 다음은 고려시대 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할아버지는 태조 왕건, 할머니는 경순왕의 큰 아버지 김억림의 딸이다.</li> <li>○ 아버지는 안종이고, 어머니는 경종의 비인 헌정왕후이다.</li> <li>○ 강조의 정변으로 왕위에 올랐다.</li> <li>○ 4도호부·8목·56지주군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제도를 완비하였다.</li> </ul> |
|-------------------------------------------------------------------------------------------------------------------------------------------------------------------------------------------------------------------|

< 보 기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무반을 조직하였다.</li> <li>㉡ 국자감에 7제를 설치하였다.</li> <li>㉢ 7대실록을 편찬하기 시작하였다.</li> <li>㉣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대파하였다.</li> </ul> |
|----------------------------------------------------------------------------------------------------------------------------------------------------------|

- ① ㉠, ㉡      ② ㉡, ㉢      ③ ㉢, ㉣      ④ ㉠, ㉣

7. 정답 : ㉓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왕은 '현종'이다. 목종 다음으로 즉위한 현종이 국왕의 자리에 서게 된 과정은 매우 극적이었다. 현종의 아버지는 안종(安宗)으로 추존되는 왕육이고, 어머니는 경종의 왕비였던 헌정왕후 황보씨였다. 한편 1009년 강조가 국왕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궁궐에 들어와서, 역모를 꾸미던 천추태후와 김치양 일파를 제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왕이었던 목종을 폐위, 살해하고 현종이 즉위하게 되었다.

㉔ 1010년(현종 1) 거란의 2차 침입으로 고려 초기부터 간행된 『고려왕조실록』이 소실되자, 태조에서 목종까지의 『7대 실록』을 다시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㉕ 1018년(현종 9) 거란의 3차 침입 때 강감찬은 패퇴하는 거란군을 추격하여 구주(龜州)에서 거란군을 거의 섬멸시켰다(귀주 대첩 = 구주대첩).

㉖ 고려 숙종 때 윤관의 건의에 따라 별무반이 설치되었다. ㉗ 예종 대 관학 진흥책의 일환으로 국자감을 국학으로 개칭하고 국학 내에 7제라는 전문 강좌를 설치하였다.

8. 다음 글에 서술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는?

오늘날의 가치로 최소 600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전 재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였다. 남만주의 삼원보에 신한민촌을 건설하고,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민족 교육과 독립군 양성을 추진하였다.

- ① 이동휘  
③ 이상설

- ② 이회영  
④ 박용만

8. 정답 : ②

② 제시된 글에서 서술한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는 우당 이회영(1867~1932)이다. 1907년 신한회에도 참여하였던 이회영은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조약이 체결되자 그해 12월에 전재산을 처분하여 온 가족을 데리고 만주로 망명하였다. 이회영은 길림 지역에 정착하고 경학사, 신흥 강습소 등을 설립하여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해 나갔다. 이후 그는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는데, 1924년에는 재중국 조선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조직하였고, 1931년에는 항일 구국 연맹의 의장에 추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32년 상해에서 대련으로 향하던 도중 일본 경찰에 붙잡혀 결국 옥사하고 말았다.

9. 밑줄 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신(史臣)이 말하기를, '신종은 이 사람이 세웠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왕을 폐하고 세우는 것이 다 그의 손에서 나왔다. (신종은) 한 갓 실권이 없는 왕으로서 신민(臣民)의 위에 군림하였지만, 허수아비와 같았으니, 애석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 고려사 -



< 보 기 >

- ㉠ 봉사 10조라는 사회개혁안을 제시하였다.
- ㉡ 강화도로 천도하여 대몽항쟁을 주도하였다.
- ㉢ 좌·우별초에 신의군을 추가하여 삼별초를 완비하였다.
- ㉣ 도방을 부활하여 군사들이 6번으로 나누어 숙위하게 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9.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이 사람’은 최충헌이다. 명종은 최충헌이 정변을 일으켰을 때 그를 적극 지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최충헌은 정변 이듬해인 1197년에 특별한 명분없이 명종을 폐위하고, 그의 동생 평량공 민(平凉公 旻 : 신종)을 왕으로 추대하였다.

㉠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 최충헌은 명종에게 사회 개혁안으로서 ‘봉사 10조’를 올렸다. ㉡ 최충헌은 사병 집단으로 경대승 때 권력 강화 기구로 설치되었던 도방을 다시 설치하여 신변을 경호하고 무단 정치를 강화하였다. 도방은 이후 최우 때 설치된 삼별초와 함께 최씨 정권을 유지하는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 강화도로 천도하여 대몽항쟁을 주도한 것은 최충헌의 아들 최우 집권기의 사실이다. ㉣ 좌·우별초에 신의군을 추가하여 삼별초를 완비한 것 역시 최우 집권기의 사실이다.

10. 다음 서문이 실린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난 계축년 4월에 『구삼국사』를 얻어서 그 곳에 있는 「동명왕 본기」를 읽어보니, 그 신기하고 이상한 사적이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넘고 있었다. 그러나 역시 처음에는 믿지 못하였으니, 귀신이나 허구로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여러 번 거듭 읽고 음미하여 점차 그 근원을 찾아가니, 그것은 허구가 아니라 신성함이며, 귀(鬼)가 아니라 신(神)이었다. 하물며 국사(國史)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쓰는 글이니, 어찌 그 사실을 함부로 전하였겠는가?

- ①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 ② 『동국이상국집』에 수록되어 전한다.
- ③ 신라 계승의식을 반영하였다.
- ④ 몽골의 지배를 긍정하는 한계를 보였다.

10.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이규보의 「동명왕편」 중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② 「동명왕편」은 이규보의 전집 3권에 기재되어 있다.

① 「동명왕편」은 이규보가 1193년(명종 23) 고구려 시조 주몽에 대해 오언고율(五言古律) 형식으로 쓴 서사시이다. ③, ④ 「동명왕편」은 『구삼국사(舊三國史)』에서 소재를 취하여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는 제외된 고구려의 신이한 건국 사적을 서술함으로써, 고구려가 성스러운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자부심과 함께 몽골에 항거하는 정신을 전하려는 의

도에서 저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1.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역법서를 편찬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은?

-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역법서
- 한양의 위도를 기준으로 하여 매일의 일출입(日出入) 시각과 주야(晝夜) 시각을 계산
- 조선의 자주적 역법체계를 확립한 역법서로 평가됨

- ① 서운관(書雲觀)의 이름을 관상감(觀象監)으로 고치고 관원들의 명칭과 인원을 조정했다.
- ② 문신들에게 당(唐)의 선명력(宣明曆)과 원(元)의 수시력(授時曆) 등의 차이점을 교정하게 하였다.
- ③ 『대통력일통궤(大統曆日通軌)』를 비롯한 6종의 통궤(通軌)를 교정·편찬하였다.
- ④ 『회회력법(回回曆法)』을 대조·검토하여 중국 역관(曆官)에게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11. 정답 : ①

제시된 자료에서 설명하는 역법서는 세종 대에 편찬된 『칠정산 내외편』이다.

- ① 고려 후기~조선 태조 때의 업무가 그대로 계승된 서운관은 천문 각상의 관측, 역서(曆書)의 제작, 풍수지리에 관한 일을 맡은 관서로 세종 때에 이르러 천문학과 천문관측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면서 그 구성원이 대폭 증원되었다. 이후 세조 12년(1466) 정월에 있었던 관제의 개정에서 서운관은 관상감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고 관장 업무 및 직제, 인원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관상감의 관제는 그대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 ② 세종은 자주적 역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위 6년 당의 선명력, 원의 수시력, 보교회보중성력(步交會步中星曆) 등 역법의 차이점을 비교·교정하도록 하였다. ③ 1433년(세종 15) 세종은 신하들에게 명나라의 대통력을 연구해서 역법의 원리를 완전히 소화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순지 등은 명나라의 대통력을 연구하여 그 결과로 『대통력일통궤(大統曆日通軌)』, 『태양통궤(太陽通軌)』, 『태음통궤(太陰通軌)』, 『교식통궤(交食通軌)』, 『오성통궤(五星通軌)』, 『사여전도통궤(四餘纏度通軌)』 등을 편찬하였다. 이들 책은 『칠정산내편』을 완성하기 위한 전초 단계의 역법 이론을 망라한 것으로, 세종 때의 천문학자들이 중국의 역법 지식을 완전히 소화하였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된다. ④ 이순지와 김담은 한양의 위도에 맞춘 수치를 적용하여 회회력의 방법을 총정리해서 『칠정산외편』을 완성하였다.

12. (가), (나)와 직접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 칼과 방울을 의(義)와 경(敬)의 상징으로 차고 다녔다.
- (나) 이언적의 철학사상을 발전시켜 주리철학을 정립하였다.

- ① (가) -주리론의 선구자로 기보다 이를 중시하였다.
- ② (가) -문하에서 다수의 의병장이 배출되었다.
- ③ (나) -일본의 성리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④ (나) - 기대승과 사단칠정 논쟁을 벌였다.

12. 정답 : ①

제시된 자료의 (가) 인물은 남명 조식, (나)는 퇴계 이황이다.

① 주리론의 선구자로 기보다 이를 중시한 인물은 이황이다.

② 조식은 노장사상에 포용적이었으며 학문의 실천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그러한 실천성을 바탕으로 절의와 기개를 중요시 여겼으며, 임진왜란 때 정인홍, 광재우, 김면 등이 의병 활동을 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③ 이황의 성리학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전해져 일본 성리학 발전에 공헌하였다. ④ 이황은 학문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 매우 유연한 태도를 취했는데, 59살이 되던 해에 33살의 어린 기대승과 8차례에 걸친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단(四端) 및 칠정(七情)에 대한 논쟁을 벌였다. 논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황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자신보다 한참 어린 나이인 기대승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기도 하였다.

13.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은/는 성종 때에 편찬한 관찬사서로서 삼국균적(三國均敵)을 내세워 삼국을 대등한 국가로 해석하여 고려시대의 고구려 계승주의와 신라 계승주의의 갈등을 해소하였으며, 개국 후 권력 갈등을 일으켜 온 국왕과 훈구, 사림의 합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 보 기 >

- ㉠ 편년체로 서술되었다.
- ㉡ 단군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 ㉢ 『자치통감강목』의 범례를 규범으로 삼아 서술하였다.
- ㉣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혔다.

① ㉠, ㉡

② ㉡, ㉢

③ ㉢, ㉣

④ ㉠, ㉣

13. 정답 : ①

제시된 자료의 (가)는 성종 대 완성된 『동국통감』이다.

㉠, ㉡ 『동국통감』은 서술 체제가 편년체로 되어 있다. 또한 단군조선에서 삼한까지를 외기(外紀), 삼국의 건국부터 669년(신라 문무왕 9)까지를 삼국기, 669년부터 935년(고려 태조 18)까지를 신라기, 이후 고려 말까지를 고려기로 편성했다.

㉢ 안정복의 『동사강목』에 대한 설명이다. 『동사강목』은 전체적으로 보면 편년체이지만 중요한 항목을 ‘강(綱)’으로 뽑고, 그 세부 내용은 줄을 낮추어 ‘목(目)’으로 하여 서술하였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주희가 유교적 포폄(褒貶) 원칙에 따라 정동과 비정동을 구분하고, 시비(是非)를 분별하여 저술한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따른 것이다. ㉣ 중국 및 일본의 자료를 참고하여 민족사 인식의 폭을 넓힌 역사서는 조선 후기 한치윤이 저술한 『해동역사』이다.

14.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김숙자의 아들로 호는 점필재이다.
- 성종 때에 이조참판, 형조판서, 홍문관 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 문하에서 정여창, 김굉필, 김일손 등이 수학하였다.

< 보 기 >

- ㉠ 안향을 배향한 백운동서원을 세웠다.
- ㉡ 공납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주창하였다.
- ㉢ 무오사화의 단서를 제공한 조의제문을 지었다.
- ㉣ 온건파 신진사대부인 길재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14. 정답 : ③

제시된 자료에 해당하는 인물은 김종직이다. 그의 호는 호(號)는 점필재(佔畢齋)이며, 1459년(세조 5) 식년문과에 정과로 급제하였다. 성종 때 『동국여지승람』 편찬에 관여하기도 하였으며, 김굉필, 정여창, 김일손, 남효온 등이 그의 문하에서 수학하기도 하였다.

㉢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은 항우에게 죽은 초나라 회왕, 즉 의제(義帝)를 위해 지은 글인데, 이 내용이 세조에게 죽음을 당한 단종을 의제에 비유하였다고 하여 문제가 되었으며, 이것이 훗날 무오사화가 일어나는 계기로 이어졌다. ㉣ 김종직은 야은(治隱) 길재로부터 이어지는 사림의 맥을 이은 영남 사림파의 영수이다.

㉠ 안향을 배향한 백운동서원을 인물은 풍기군수 주세붕이다. ㉡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수미법을 실시할 것을 주창한 대표적인 인물은 조광조이다.

15.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           |   |              |   |              |   |            |
|-----------|---|-----------|---|--------------|---|--------------|---|------------|
| 별기군<br>창설 | ㉠ | 제물포<br>조약 | ㉡ | 조러수호<br>통상조약 | ㉢ | 조불수호<br>통상조약 | ㉣ | 박영효<br>건백서 |
|-----------|---|-----------|---|--------------|---|--------------|---|------------|

- ① ㉠-기기창 설치      ② ㉡-한성순보 창간  
③ ㉢-광혜원 설립      ④ ㉣-영국의 거문도 철수

15. 정답 : ①

제시된 표에서 별기군 창설은 1881년 5월, 제물포 조약은 1882년 7월, 조·러수호통상조약 체결은 1884년, 조·불수호통상조약 체결은 1886년, 박영효의 건백서는 1888년의 사실이다.

① 1881년 9월 김윤식은 38명의 유학생을 이끌고 영선사로 파견되었으나,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과 국내 사정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귀국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귀국과 함께 국내 최초의 근대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이 설립되었다(1883).

② 「한성순보」는 1883년 박문국에서 발행되기 시작하였으나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발행이 중단되었다. ③ 알렌과 정부의 공동 출자로 1885년 광혜원이 설립되었다. ④ 영국의 거문도 철수는 1887년의 사실이다.

16.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862년에는 진주에서 몰락 양반 유계춘을 중심으로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부정부패에 항의하는 농민봉기가 일어나 진주성이 점령되었다. 이후 삼남 지방의 70여 곳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고, 곧이어 북쪽의 함흥 지역에서부터 남쪽의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농민 봉기에 당황한 세도정권은 (가)을/를 설치하고 개혁에 착수하여 민심의 동요를 진정시키고자 하였다.

< 보 기 >

- ㉠ 박규수의 건의로 설치한 기구였다.
- ㉡ 전세, 공납, 군역의 삼정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 ㉢ 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정이정절목’을 공포하였다.

- ① ㉠                      ② ㉡, ㉠                      ③ ㉡, ㉢                      ④ ㉠, ㉢

16. 정답 : ③

(가)는 1862년 임술 농민 봉기 당시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설치된 ‘삼정이정청’이다.

㉠ 1862년에 일어난 임술 농민 봉기에 대한 대책으로 조정에서는 진주에 안핵사 박규수를 파견하였고, 안핵사 박규수의 건의에 따라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여 민란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삼정이정청을 설치한 뒤 조정 대신들은 그해 5월부터 8월까지 ‘삼정이정절목’ 41개 조를 제정하여 반포하였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 삼정이정청이 설치된 이후 제정된 ‘삼정이정절목’에서는 전정, 군정, 환곡의 삼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전정, 군정은 민의에 따라 현황을 시정하고, 환곡은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토지에 부과하는 파환귀결(罷還歸結)에 따르기로 하였다.

17.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세기 중엽의 마지막 사화를 끝으로 결국 사림이 재등장하여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선조(宣祖) 시대의 개막이다. 선조 대의 사림정권은 성리학 시대를 활짝 열었다. 이로 인해 성리학적 사회질서가 자리잡았다.

- ① 『소학』이 널리 보급되었다.
- ② 지방에서는 향약이 널리 시행되었다.
- ③ 가족 및 친족제도가 남자 중심, 장자 중심으로 점차 개편되었다.
- ④ 사림들은 『국조오례의』에 따라 제사 의식을 바꾸고 보급과 실천에 힘썼다.

17. 정답 : ④

④ 16세기 중엽 성리학적 사회 질서가 정착되어가면서 사림들은 『주자가례』에 따라 가정 윤리를 실천하고, 상장례 등의 의식을 행하고자 하였다.



①, ② 16세기 사람들이 집권하면서 사람은 성리학적 생활 규범을 규정하고 향촌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도덕과 의례의 기본 서적인 『소학』을 보급하였고, 향약 보급 운동을 추진하였다. ③ 16세기에 접어들어 가족 제도에서도 성리학적 종법 질서가 확립되면서 가족 및 친족 제도가 점차 부계 중심으로 정착되어 갔고, 장자 중심의 제사와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8. 다음과 관련있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인은 대한 독립 광복을 위하여 오인의 생명을 희생에 이바지함은 물론 오인이 일생의 목적을 달성치 못할 시는 자자손손이 계승하여 수적(讐敵) 일본을 온전 구축하고 국권을 광복하기까지 절대 불변하고 일심육력(一心戮力) 할 것을 천지신명에게 맹서해 고함.



- ① 서일을 단장으로 만주에서 조직된 항일 무장단체이다.
- ② 하와이에서 조직된 대조선 국민군단의 국내 조직이었다.
- ③ 임병찬이 고종의 밀지를 받고 의병장과 유생을 모아 조직한 단체이다.
- ④ 의병 계열과 애국 계몽 운동 계열의 인사들이 통합하여 만든 단체이다.

18. 정답 : ④

제시된 사료는 1915년에 조직된 '대한 광복회'의 결의문이며, 제시된 인물은 박상진이다.

④ 대한 광복회는 1915년 대구에서 한말 의병 계열과 계몽운동 계열이 연합하여 결성한 단체로, 1913년 경상북도 풍기에서 조직된 광복단과 1915년 대구에서 조직된 조선 국권 회복단이 중심이 되어 창립되었다.

① 서일이 중심이 되어 만주에서 조직된 항일 무장단체로는 1911년 북간도 지역에서 조직된 중광단, 1920년 북만주 봉밀산 지역에서 조직된 대한 독립 군단 등이 있다. ② 대조선 국민군단의 국내 지부는 1915년에 조직된 조선 국민회로, 조선 국민회는 장일환과 배민수가 주도하여 평양 숭실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중심으로 조직된 비밀 결사 단체이다. ③ 유생이었던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하였으며 복벽주의를 표방한 단체는 독립 의군부이다.

19. 다음 사료들을 시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 남북 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는 자주적 민주적 통일 조국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양 조선의 단선 단정을 반대하며, 미 소 양군의 철퇴를 요구하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나) 조선의 좌우합작은 민족 독립의 단계이요, 남북 통일의 관건인 점에 있어서 3천만 민족의 지상 명령이며 국제 민주화의 필연적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에 협력하지 않겠다. 나는 내 생전에 38 이북에 가고 싶다.  
 (라) 위원회가 조선 국민의 자유 및 독립의 긴급 달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적령자 선거권을 기초로 비밀투표에 의하여 1948년 3월 31일 이내에 선거를 시행함을 건의함. ....

- ① (가)-(나)-(라)-(다)                      ② (나)-(라)-(다)-(가)  
 ③ (나)-(가)-(라)-(다)                      ④ (나)-(라)-(가)-(다)

19. 정답 : ②

(나)는 1946년 10월에 발표된 좌우 합작 7원칙의 일부이다. (라)는 1947년 11월에 발표된 한국 문제에 대한 유엔 결의안이다. (다)는 1948년 2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발한 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다. (가)는 1948년 4월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 대한 내용으로,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는 김구와 김규식이 제안하였으며, 이에 김일성과 김두봉이 응함으로써 성사되었다.

20. 다음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발표된 선언문들이다. 이를 시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 우리는 이제 3선 개헌을 강행하여 자유 민주에의 반역을 기도하는 어떤 명분이나 위장된 강변에도 현혹됨이 없이 헌정 20년간 모든 호헌 세력들의 공통된 신념과 결단 위에서 전국민의 힘을 뭉쳐 단호히 이에 대처하려 한다. 집권자에 의해서 자유 민주에의 기대가 끝내 배신당할 때, 조국을 수호하려는 전국민은 요원의 불길처럼 봉기할 것이다.  
 (나) 상아의 진리탐을 박치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캄캄한 밤의 침묵에 자유,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원임을 자랑한다.  
 (다) 우리는 왜 충을 들 수 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디 이성 보고 있을 수민 없어서 너도나도 충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 정부는... 17일 야간에 계엄령을 확대 선포하고, 일부 학생과 민주 인사, 정치인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구실로 불법 연행하였습니다.  
 (라) 오늘 우리는 전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디딘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하였던 현 정권에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국민의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

① (나)-(가)-(라)-(다)

② (나)-(가)-(다)-(라)

③ (가)-(나)-(라)-(다)

④ (가)-(나)-(다)-(라)

20. 정답 : ②

(나)는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 선거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일어난 4·19 혁명 당시 서울 대학교 문리대 학생회의 4월 혁명 제1선언문이다. (가)는 박정희가 대통령 재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1969년 3선 개헌을 단행하자 이에 반대한 ‘3선 개헌 반대 범국민 투쟁 위원회’의 선언문이다. (다) 1980년 신군부 세력의 계엄 확대에 반발하여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의 ‘광주 시민 쉼기문’의 내용이다. (라)는 1987년 6월 10일 성공회 구내에서 발표된 것으로, 전두환 정권의 ‘4·13 호헌 조치’에 의한 대통령 후보 선출을 반대하는 ‘호헌철폐 및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의 선언문이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海東韓國史